



連載〔8〕

잃어버린 古代都市

Ⅷ. 王都를 수호하는 이슈탈의 門

발굴된 바빌론의 王都는 바빌로니아 時代의 최후를 장식하는 카르테아 時代의 것이며 에루살렘의 정복자 네브 카도네갈이 건설한 도시였다. 都市 全体는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 싸였는데 내측 벽은 두께가 4 미터 정도로 생벽 돌을 다져서 축조한 것이다. 다시 이것을 補強하기 위해서 거의 같은 간격으로 塔이 설치되어 있다. 외측과 내측 벽의 구조상의 차이는, 외측 벽은 일부에 소성벽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두께가 6.5미터이다. 그 외에는 모두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외측 성벽은 全長이 약 18킬로미터이며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여 직사각형으로 둘러 싸여 있다. 따라서 이 都市의 내부면적은 넓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근처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미리 이렇듯 광대하게 만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도시로 들어가는 城門은 여덟군데에 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지금 발견된 것은 북쪽의 이슈탈門, 동쪽의 기슈르門(혹은

마르두크門), 같은 동쪽의 자바바門(혹은 닌우르타門), 그리고 남쪽의 우라슈門 네개 뿐이다. 그 중에서도 이슈탈門의 遺構가 발견된 것은, 그 규모나 벽면의 풍부한 색채로 된 彩釉煉瓦로 보아 획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에마크神殿(이슈탈神殿)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북으로 벌어진 行列道路를 걸터 타듯이 떡 버티고 서 있다. 문 높이는 12미터, 정면에는 두 개의 높은 城樓가 솟아 있고 내측에는 橫과 縱으로 긴 방이 있다. 그러나 뛰니뛰니해도 이 이슈탈門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정면과 내측 벽에 있는 靑과 黃의 색채로 된 彩釉煉瓦로 이루어진 浮彫이다. 용과 황소의 浮彫가 번갈아 가며 벽 전면에 列을 지어 있어 이른바 프리즈를 형성하고 있다. 이 동물의 수는 출잡이 어렵하여도 575마리나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처럼 많은 動物像이 버티고 서서 이슈탈門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로는 이슈탈門이, 전쟁과 사랑의 女神인 이슈탈한테 바쳐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浮彫된 용의 형상이 마르두크神을, 황소의 형상은 아다트神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수께끼는 스스로 풀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빌론의 都市는 문자 그대로 城 자체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들어 올 수 있는 門은 모두 외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며 따라서 많은 동물들의 浮彫는 도시를 외적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呪術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용이나 황소 그리고 사자와 같은 웅장하고 용감한 동물들이 선택된 이유도 위에서 말한 것을 실증시켜 주고 있다.

이슈탈門의 正式名稱은 〈이슈탈 사키파트 데비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슈탈은 그의 적을 분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다.

요컨대 이슈탈의 門은 呪力을 가진 많은 동물들과 더불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바빌론의 王都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心象〉